최 영근 그림

무쇠 장군

3 - APR 11
Copy 1961

황해 제철소에서는 설비 리용률을 제고하여 강철
산에서 일산 800 톤의 수준을 돌파하였다.

화살

1960년 2월 하반호 (120)

설비 리용률 제고를 위하여 공무 직장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

딱한 사정

최 영근 그림

공작 기계―네? 급한 보수 사업이 있다구요 갈수 없는데요. 저에 대한 보수 정비를 해주지 않아서 며칠째 누워 있습니다.

김책 제철소 공무 직장에서는 공작 기계에 대한 보수 정비 사업을 등한히 한 결과 기본 생산 시설의 보수를 제때에 질적으로 보장 못하고 있다.

많긴 한데!?

최 영근 그림

룡흥 광산 공무 직장에서는 기계 시설에 대한 부속품 생산을 제때에 보장하지 못하여 생산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

부록크는 부록크인데…?

허 능택 그림

함북도 청진시 도시 건설 관리국 부재 생산 사업소에서는 부록크 생산에서 많은 오작품을 냄으로써 건설 현장에서 막대한 로력 랑비와 시공에 지장을 주고 있다.

끝없는 시공

허 능택 그림

함북도 청진시 도시 건설 관리국 지도 일'군들은 지난 시기 무려 4~5 차씩이나 기초 공사를 변동시킴으로써 많은 로력을 랑비하였으며 공사를 지연시켰다.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

열마전에 열리였던 운산 광산 년말 총화 회의에서는 많은 토론자들이

《…끕삐야 적재기와 수동식 적재기를 도입하고 운반용 쇠통을 1 톤으로부터 1.3 톤으로 담게끔 개조한다면 버럭과 광석을 하루 한 사람이 5 톤은 더 운반할 수 있으며 그리고 모래충과 측면 주수기를 도입한다면 천공 시간을 하루 100~150 분은 더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그러나 년말 총화 회의가 있은지 벌써 두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운산 광산의 갱내에는 끕삐야 적재기는 커녕 손 쉽게 만들 수 있는 수동식 적재기와 1.3 톤 들이 운반용 쇠통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으며 버럭과 광석은 여전히 삽태기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배인과 기사장은 성에서 내려온 《기술 발전 계획서》가 책상 설합에서 잠 자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가 하면 무기능공을 기능공으로 끌어 올리며, 기술자들의 기술 수준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세우지 않았던 것이다. 《로동자들이 기계화 및 선진 기술을 도입할 데 대한 의견을 제기할 때마다 《합시다》 《해야지요》하는 식으로 성큼성큼 대답만 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갱내의 운반 작업만이라도 기계화했더라면 600 메터의 굴을 더 뚫었을 것은 물론, 채광량도 락후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요》

수개월 동안 책상 설합에 파묻혀 있던 《기술 발전 계획서》는 지배인과 기사장이 책상 설합을 뒤적거릴 때마다 이렇게 제기하군 하였다.

그러나 지배인은 자기 책임을 느끼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 대신에 기사장에게

《…기계화 및 선진 기술 도입이야 기사장이 《책임》을 지지 않았소…》

지배인의 모범을 받은 기사장은

《갱내의 기계화 및 선진 기술 도입이야 탐측 부장이 《책임》지고, 갱외의 것이야 공무 동력 부장이 《책임》지지 않았소?…》하는 식으로 《책임》을 서로 전가하고만 있으니 기계화 및 선진 기술 도입이 개미 체바퀴 돌듯 락후한 처지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을 수 밖에 없지 않을까?

피 호주

어느 일이 더 중요한가?

강원 일보사 정도유 그림

일부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기계화 작업반>이요. <건설반>이요. <양어반>이요. <과수반>이요 하면서 농사에 력량을 집중 할 대신에 힘을 분산시키고 있다.

지방 공업을 가일층 발전시키자!

지방 산업 순천 제지 공장 지도 일'군들은 농촌에 풍부한 옥수수 오사리를 리용하려 하지 않고 중앙 배정품에만 의존하고 있다.

내밀기 좋아하는 사람

홍 종호 그림

오작품과 짝이 맞은 《정치 사업》

원산 농기계 공장에 온 한 도매소 인수원은 이 공장에서 농기계를 받아 가지고 공장 문밖으로 나섰다.

공장 문밖에 나서자 개중에서 떨렁 우차 몇 대가 떨커덩 주저 앉으면서 〈앙탈〉을 부렸다.

《네각이 쫄아 들어서 갈 수가 없으니 공장 건조장에 들어가 몸을 건조시킨 다음 조기 직장에 가서 몸을 단련시켜 가지고 떠나겠다》는 것이였다.

인수원은 화가 치밀어 하늘에 오를 지경이 였으나 도매소 〈위신〉과 떨렁 우차의 가련한 〈신세〉를 생각해서 꾹 참고 말았다.

그런 일이 있은지 며칠이 지나서 이번에는 원산시 도매소 창고를 겹쳐 나간 어떤 농기계들이 농촌에 나가서 일을 하자니 오금을 쓰지 못해서 원산 농기계 공장에 도로 실리여 왔다. 공장에 돌아 온 그들은 자기들의 〈가련한 신세〉를 사실대로 실토하였다.

《축축하게 젖은 참나무로 달구지 북통을 만들어 주어서 일을 해볼려고 몸을 운신하니 북통이 15 미리씩이나 말라 들면서 사지가 저절로 물러 앉았소. 그러니 앞으로는 공장에서 떠나는 농기계는 어떤 것을 막론하고 〈건강 진단〉을 단단히 해가지고 떠나는게 피차간에 안심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 일은 농기계들의 망신이자 공장 일'군들의 망신이였다.

그래서 이 망신을 뒤집어 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뒤집어 씌울 것인가?

망신을 모면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갈래로 나섰다.

공장 지도 일'군들의 생각에는 자기 공장에서 만든 농기계들이 농촌에 가서 천대를 받고 되돌아 온다는건 한개 망신보다도 로농 동맹에 손해가 돌아 온다는 생각이 앞질러서 더욱 걱정스러웠다.

그래서 기계를 보내는 농촌에다 〈정치 사업〉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이 망신을 회복할 방도가 없었다. 이리하여 〈정치 사업〉에 대한 〈요강〉을 만들기를 《농민들은 아직 새 기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기계를 천대하는 경향이 있고 조합에서는 기술 전습을 하지 않고 기계를 망탕 부려 먹는데서 사달이 잦게 되니 이것을 결정적으로 방지해야 합니다》.

망신에 대한 처리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낸 어떤 공장 지도 일'군은 〈정치 사업〉을 통해서 이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는 것이 선차적 과업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편지 문안〉 격으로 《기계를 사랑하여 주시요. 우리 공장에서 탄생한 기계들이 죄다 〈신체 검사〉를 한 다음 일정한 〈기본 동작〉을 해보고 떠나는게 원칙이지만 당신들의 농사 차비가 바쁘고 해서 바삐 떠났다는 사정을 고려해서…》 풍편에 띄우는〈정치 사업〉의 성격을 띤 〈주의사항〉이 조합원들게 쉽사리 침투되기는 과연 어려웠다.

그래서 농기계가 간 곳에서는 이따금씩 공장에 〈요구 조건〉을 제기해 왔다.

《귀 공장에서는 〈자동 분해식 기계〉를 전문으로 만들지 않는게 우리 농민들에게는 편리합니다. 이 기계는 우리 지대에서 〈기후 풍토〉가 맞지 않아서 조금만 피곤해도 저절로 사지가 물러납니다.》

덕원군 어느 조합 한 친구는 조합원 총회에서 이렇게 토론한 바가 있었다.

《원산 농기계 공장에서 온 탈곡기나 달구지나 제초기 할 것 없이 이 기계들을 믿고는 도무지 일을 마련할 수가없소.》

공장에서는 당 중앙 위원회 1959년 12월 확대 전원 회의 정신에 비추워 자기 사업을 총화 짓는 과정에서 농촌에서 온 요구 조건이 옳다는 근거를 로동자 자신들이 발견하고 일어 섰다.

그의 선두에는 기계 조립공인 김 탁도 령감이 나섰다.

《건조로 시설을 개선하고 확장합시다. 그리구 원형 절삭기를 도입해서 기계를 쓸모있고 튼튼히 만들어야 합니다.》생산 협의회에서는 문제가 이렇게 나섰다. 그래서 달구지 살박기 기계 방틀 조립기 등을 비롯한 30 여건의 합리화 제의들이 나왔다.

로동자들의 애국적 발기는 금년 상반년까지 목제품은 죄다 기계화하고 금년말까지 제재 부문은 자동화할 데 대한 계획에까지 이르렀다. 기사장 김 장복, 부지배인 조 현도 동무들을 비롯한 일부 지도 일'군들이 이번에는 이 애국적 발기에 〈정치 사업〉을 따라 세울 것을 작정했다. 틀어 막는데 버릇을 부친 그들은 《그런 것은 계획에 예견하지도 않은게구 함부로 그런 엉뚱한 계획을 했다가 실패되는 날에는 굉장한 야단 봉변을 겪을 판이오. 그러니 매사를 잘 생각하고 발기도 해야 하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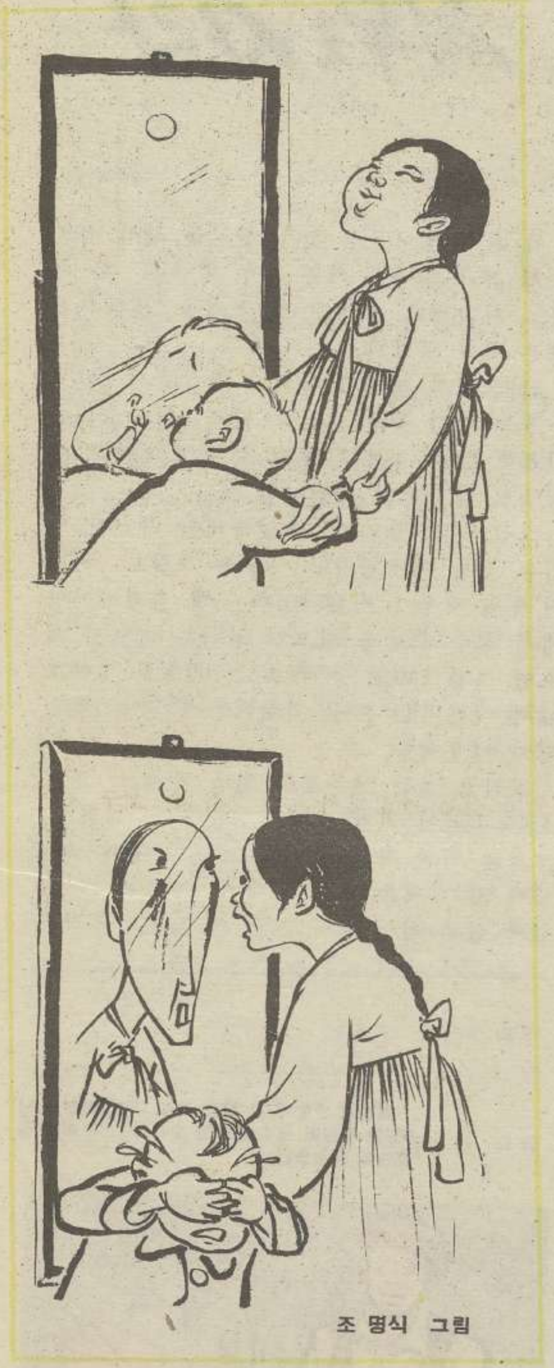
요구 조건이나 신소가 들어오면 틀어막다가 새 싹이 나오면 벌벌 떠는게 버릇이 된 일부 지도 일'군들은 새로운 싹이 나올려고 하면 그것을 제때에 눌러 버리는데 〈정치 사업〉을 복종시켰다.

이래서 제초기 날을 조립하는 기계 〈리벳트 짱짱기〉를 비롯한 수다한 기계들이 나오다가는 자취를 감추군 하였다.

이래서 오작품과 짝이 맞는 〈정치 사업〉은 언제나 보수성과 소극성과 침체성을 자기의 길 동무로 하였다.

서 득창

이상한 거울



조 명식 그림

쥐들의 결론

덕천 제지 공장 지도 일'군들은 타산 없이 건설을 벌려만 놓고 생산 면적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지 못하고 있다.

홍 종호 그림

쥐—이 건물에 기대들이 언제 설치될지 모르니까 안심하고 이것을 우리들의 구락부로 정합시다.

지방 산업 강동 직물 공장 지도 일'군들은 기술 장비의 개선에 무관심한 데로 부터 기계화할 수 있는 공정을 수공업적으로 하고 있다.

낡은 머리

지배인—물레가 좀 더 빨리 도는 수가 없나?

홍 종호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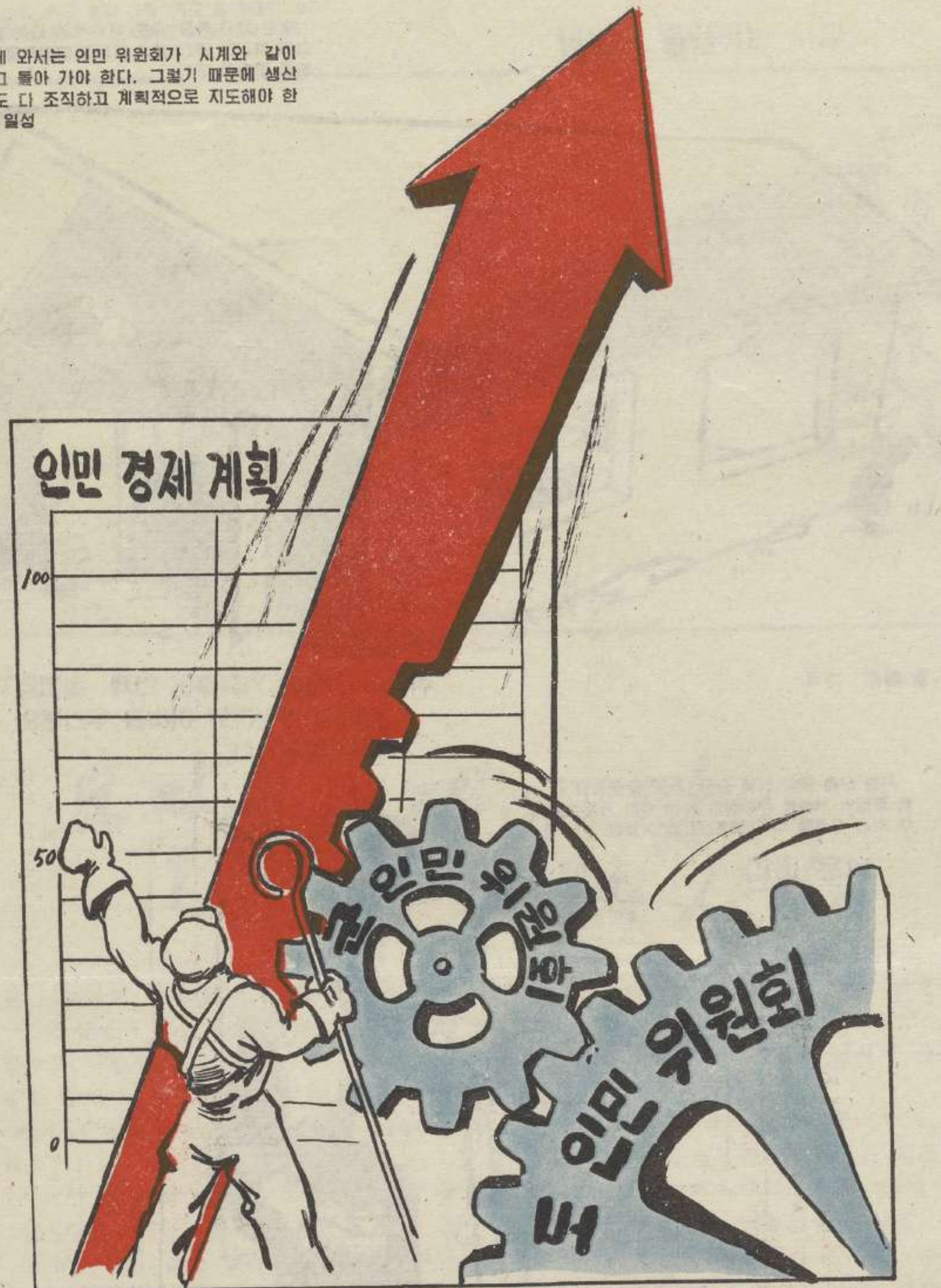
평양 식료품 협동 조합 지도 일'군들은 독립채산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미약하여 채산이 맞는지 모르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응당〉한 〈교수〉

오리—관리 위원장님 허심하게 배웁시다.

홍 종호 그림

《오늘에 와서는 인민 위원회가 시계와 같이 딱딱 틀고 돌아 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도 상업도 다 조직하고 계획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김 일성



강원 일보사 정도유 그림

제배'속만 채우는 사람

이 글의 주인공인 함흥 공업품 생산 협동 조합 제 3 양복부 재봉공 정 명근은 한 순간도 자기에게 리'속이 날 구멍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한군데서 여럿이 일하면 복잡해서 일에 능률을 내지 못합니다. 그리구 작업장들을 한군데 합쳐 놓으면 멀리 찾아 오느라고 손님들도 불편할게 아닙니까.》

그는 이런 말로 한 작업장에서 여럿이 일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사실은 그것도 자기 리'속을 채우기 위해서였다. 매 작업장마다에서 현금 취급을 했으니 일하는 사람이 적으면 그날 150% 쯤 하고도 100%를 했다고 해서 나머지를 논아 먹는데 배'속이 맞기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양복부에 천을 가지고 들어 오는 손님이 키가 작아야 반가워 하였다. 그것은 키가 작아야 가져 오는 천에서 남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음에 남은 천과 같은 천이 들어 오면 그 남은 조박지를 써 먹고 더 많은 부분을 남겨 내였다. 그래서 그것으로 집에 가서 양복을 만들어 팔았다.

조합원들의 충고를 받을 때마다

《그놈의 개인 리기주의 근성 때문에…》 하면서 반성하군 했는데 그 자리에서 돌아서자 그의 얼굴은 돌연히 웃음으로 변했다.

(그러면 내가 못해 먹을 줄 아니? 딴 방법을 연구해 내지)

이리하여 그는 또 탐오 랑비 행위로 비판을 받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는데 그리고도 아직 그의 눈은 리'속이 나는 구멍만 찾고 있다. 그래 옷의 깃들을 손으로 떠야 할 것도 풀로 붙여 대려서 눈속임을 해서 작업 실적을 올리였다.

그는 조합의 재산을 남의 재산처럼 알고 있는 모양이다.

그는 지금 자기가 제 주머니의 돈을 훔쳐 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회의 꾸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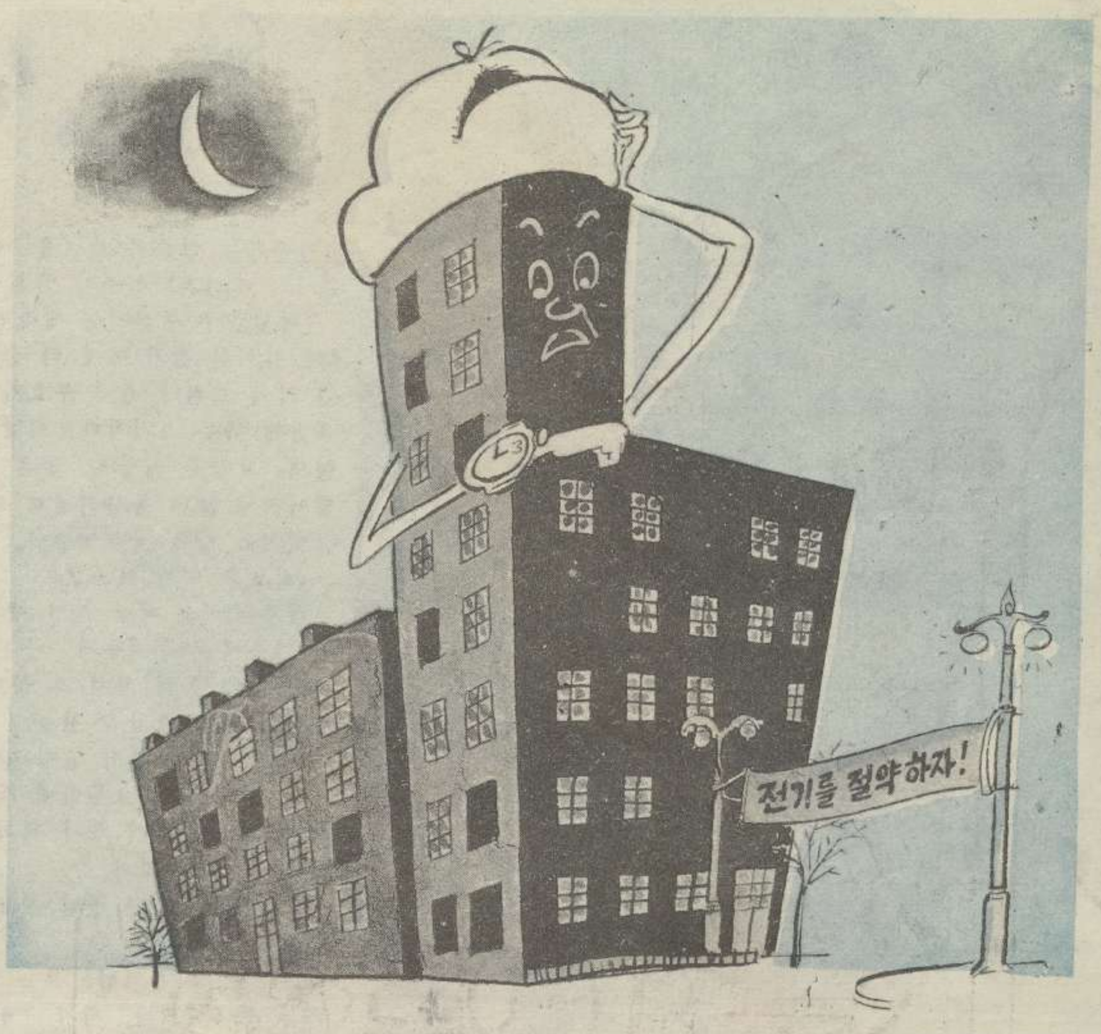
송 시엽 그림

함남도 만덕 광산 직장 기능 학교에서는 지난 8개월 동안에 교수안의 전 과정을 15% 밖에 집행하지 못하였다.

송 시엽 그림

로동자—선생님 청소해 가지고 강의에 출연 하시지요.

밤은 깊어 가건만…



원 광수 그림

—불을 켜 놓고 자고 있으니 전기 랑비는 생각지 않는 모양이군…

△ 소 문제

소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조합 일을 하고 보수를 받는 편이 나으리라)

그리하여 최 리형은 생산 협동 조합에서 훌륭한 소먹이를 받고 조합 일을 하게 되였다.

그런데 이야기는 조합에서 소먹이를 좋은 것을 준데서 생기게 되였다.

그의 소는 조합에서 주는 좋은 사료로 등이 펀펀하게 살이 쪘다. 그는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자기 소가 살 쪄 가는 것을 보고 입이 헤벌려졌다.

그는 무릎을 탁 쳤다.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하는 교묘한 구멍을 연구해 낸 자기가 남달리 영리하게까지 생각되였다.

그는 즉시 자기 소를 팔고 헐값으로 여윈 소를 샀다.

그리하여 새로 산 여윈 소는 또 조합에서 주는 좋은 소먹이로 살이 찌기 시작하였다. 소가 더 살이 찌지 않게 되자 그는 또 그 소를 팔고 여윈 소를 샀다. 이리하여 자기 돈은 한푼도 안들이고 그의 돈주머니는 점점 불룩해 갔다. 조합 관리 위원회에서는 왜 소를 자꾸 바꾸느냐고 물었다.

《글쎄 난들 정든 소를 내놓고 싶겠소. 그놈의 소가 잘 먹질 않으니 그러지요. 그러다간 소 본전을 놓을 것 같아서…

《그래도 살만 찌던데요?》

《살이 찐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살이 찐게 아니라 부어서 그렇소, 병이 있는 놈을 잘 팔아 먹었지 머》

《어떻게 아바이가 산 소들은 모두 그렇게 병난 소들 뿐이요?》

《나도 모르겠슈다. 알고야 그런걸 사겠소.》

이렇게 그는 얼버무리며 무려 아홉번이나 여윈 소를 사서 조합 소먹이로 살을 찌워서는 비싸게 팔아 먹었다.

그러다가 그는 조합에 소를 들여 놓게 되였다.

헌데 그 전날까지도 그처럼 사랑하던 자기 소가 조합에 것이 되자마자 그 소에 대한 태도가 갑자기 달라졌다.

이제는 그 소가 잘 먹건 안먹건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며 오직 끄로를 위해서는 그 소가 꺼꾸러지는 것도 아깝지 않았다.

조합 재산은 자기의 재산이며 조합 재산이 불어야 자기에게 차례지는 몫도 많아진다는 것을 그는 몰랐다.

리 운봉

청진시 일부 동들에서는 시내 청소 미화 사업을 잘 하지 않고 있다.

또 다시 시작된 개싸움

송 시열 그림

리 승만의 선거 놀음

라 일봉

경상북도 영주와 영일을구에서 괴뢰 《국회의 원재선거》 놀음이 있은 지난 1월 23일!

(영일을구 재선거는 재작년에 있은 소위 4대 민의원 선거 때에 리 승만 도당이 협잡한 것이 드러나 선거 무효가 된 후 이번에 세번째 하는 선거이다) 이날 이른 새벽부터 영덕, 포항등 지방은 물론 경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동산리에로 괴뢰 《경찰》들이 구데기와 같이 욱실거렸다.

《여보? 주인 없소?》

개무리 같이 떼를 지여 다니며 《경찰》들이 이 마을에 사는 7순에 나는 박 진석 할아버지 집에 몰려 와서 그 문허리를 구두발로 들여 차면서 고함을 쳤다.

《칙쑈! 문을 잡아 열란 말이야!》

《경찰서장》의 호통질에 개무리들은 찌그러진 문짝을 왈칵 잡아 제끼고 인으로 우루루 쓸어 들어 갔다.

《이 늙은 것아! 빨리 루표장으로 나가란 말이다!》

《예 예! 나아리님! 저는 바깥 출입도 못하는 사람이외다. 저기 누워 있는 아이들의 에미, 애비는 굶어서 이미 세상을 떠나고…》

《듣기 싫어! 잔피를 부리지 말서 일어서!》

이리하여 운신도 잘못하는 박 할아버지는 개무리들에게 붙잡혀 집혔다.

《광》《땅》 여기 저기에서 새벽를 째며 울리는 총소리, 호각 소리, 소리! 마치 마을은 〈전쟁터〉를 방불케 .

박 진석 할아버지가 놈들에게 온 곳은 《영일을구 제 3선거구 35 루표소였다.

〈루표장〉 주위 100 메터 거리에 끼줄이 쳐 있었고 그 두레를 두겹 세 둘러싼 무장한 〈순경놈〉들이 〈자 소속 〈국회〉 의원외는 누구도 얼씬 거하게 하고 있었다.

〈순경놈〉들은 총칼을 들여대며 온 박 진석 할아버지는 물론이고 인 새끼줄 밖에다 〈군대식〉으로 차례 줄을 지여 세워 놓았다.

그리고는 《자유당》이라고 쓴 완장에 두르게 하였다. 이렇게 한 다음 서로 세명 혹은 다섯명씩 조를 짜서장〉으로 들여 몰았다.

순경놈들은 〈루표장〉에 끌고 〈선거자〉들에게 〈선거 쪽지〉를 내여 주고는 거기에 〈자유당〉 소속 립후보자를 〈지지〉한다는 큰 도장을 찍게 하였다.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보는데서 〈루표함〉에 집어넣으라고 강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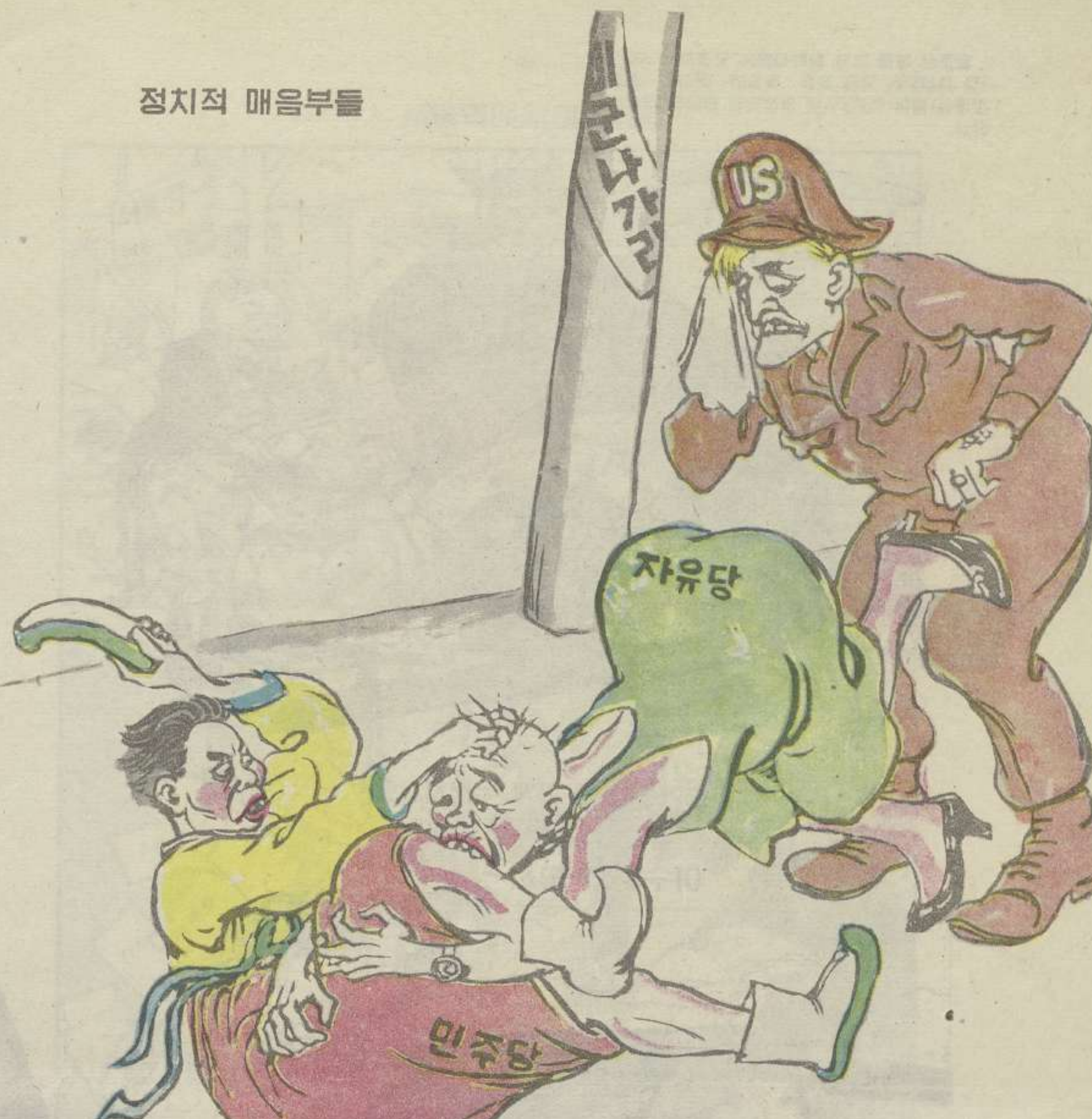
이날 영주와 영일을구의 각 〈선거구〉들에서는 이런 〈재선거〉들이 이른바 리 승만의 〈자유 선거〉의 원칙에서 끝났다.

이래서 리 승만이가 떠벌이는 오는 3월에 있을〈정부통령 선거〉의 〈표본〉으로 되였다.

그런데 요즘 인민들 속에서 높아가는 반리 승만 기세를 타고 괴뢰 정권을 탈취해 보려고 기회만 엿보던 야당파측에서는 〈비렬한 행위〉요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요 하고 리 승만 도배에게 일제히 반발의 화살을 퍼붓고 있으니 이게 야단 봉변을 겪지 않을 수가 없게 되였다. 〈4대 민의원 선거〉 때에만 하더라도 250 여만을 헤이는 〈선거자〉들이 리 승만이를 배격하여 나서지 않았던가?

송장이 다 된 미제의 늙은 주구 리 승만은 요즘 더욱 황겁해진 나머지 지난 〈4대 민의원 선거〉 때에 테로 폭압의 〈업적〉이 없는 괴뢰 〈경찰 서장〉들을 모조리 목을 떼고 테로 분자들로 갈아 채웠다. 이런 준비 밑에 〈정부 통령 선거〉 〈승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7월에 실지하기로 되여 있고 항상 5월에 해오든〈선거〉 놀음을 이번에는 야당측이 〈선거〉 태세를 채 갖추지 못한 틈을 리용해서 3월로 앞당기였든 것이다.

정치적 매음부들



박 승히 그림

리 승만거 준비

박 승히 그림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자들은 종전까지 500대 1로 실시되여 오던 피퇴 통화와 딸라의 공정 환률을 돌연 650대 1로 일방적인 인상을 감행하였다.

송 시엽 그림

리승만—더 힘 있게 누르시지요.

야수들의 병사

백 인균 그림

유감의 뜻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초보적인 방화 시설도 갖추지 않고 있는 데로부터 지난 1년 동안에 남조선에서 1,600 여 건의 큰 화재가 발생하였다. 특히 1월 30일에는 서울에서 200 세대의 가옥을 태우고 1,500 명의 리재민을 낸 대 화재가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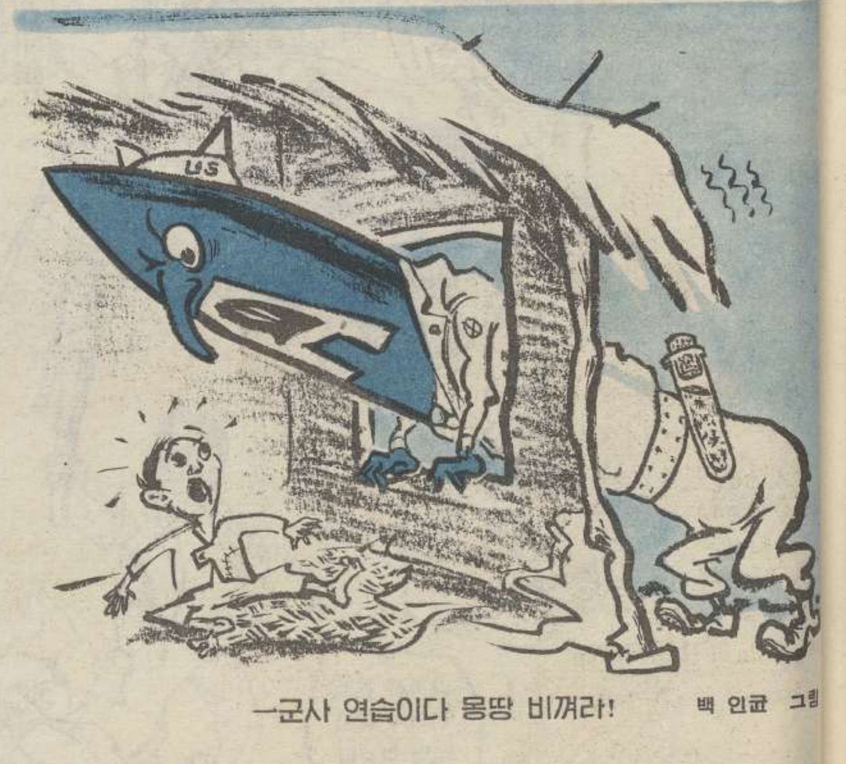
홍 종호 그림

미제—매우 유감이요! 이 장관을 저와 함께 보지 못하는 것이…
리승만—념려 마십시오! 앞으로도 계속 일어 날 것이니…

살인귀의 칼

허 농택 그림

소 동



—군사 연습이다 몽땅 비껴라!

백 인균 그림

왜 그걸 모르시나요?

오 흥택

《민주당 국회 의원 김 상진은 자기 고향인 진주에 내려 가서 한바퀴 돌아 본후 《진주 경찰 서장》을 찾았다.

《서장 령감 안녕하슈》

《하아, 국회 의원 선생께서 이렇게》

《근데 이번에 연설 좀 해야겠슈》

김 상진은 단도 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을 떼였다. 사실 《국회 의원》의 립장으로서 연설을 하는데 《경찰 서장》의 승락을 맡아야 한다는 것은 체면이 깎기는 노릇이였다. 그러나 테로가 욱실거리는 남조선 땅에서 잘못 돌아치다가는 어느 놈의 주먹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노릇이라 체면을 불구하고 미리 《경찰 서장》에게 한마디 쯤 해 놓는 것이 뒤'일을 위해 좋을상 싶었다.

《연설은 좋은데 민심이 소란해서…》

《뭐요 그래 연설할 수 없단 말이요.》

김 상진은 권위가 손상되는상 싶어서 언성을 높였다.

《그런게 아니죠, 야당 연설은 험담이 많아서 국민들이 분격하는 수가 종종 있길래…》

《서장》은 말끝을 흐리였다.

《험담이라니요. 서장 립장에서 그게…》

《아니오 오핼 하지 마시오, 조심하시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노파심으루 해 드리는 거죠, 하하하》

《경찰 서장》은 어물 거리면서 엄살을 부렸다.

× ×

《국회 의원》 김 상진이 연단에 올랐다. 그는 몇 번 헛 기침을 지으면서 장내를 돌아 보았다. 서로 희드득거리는 사람, 종이로 비행기를 만들어 날리는 아이들, 끄덕끄덕 조으는 사람, 누구 하나 자기에게 시선을 던져 주지 않았다. 그는 군중의 랭대에 몸이 옷싹하면서 마치 칼날 우에라도 올라선 감을 느꼈다. 《제길헐 놈들 같으니 국회 의원두 몰라 본담》하고 그는 초조감을 가까스로 눌러 입을 열었다.

《시민 여러분! 얼마나 수골허십니까》

이렇게 말을 시작했을 때 앞에 도사리고 앉았던 경찰이 《연설 중지》하고 호령을 쳤다.

장내가 소란하기 시작했다.

《나는 국회 의원이오, 왜 연설을 중지시키는 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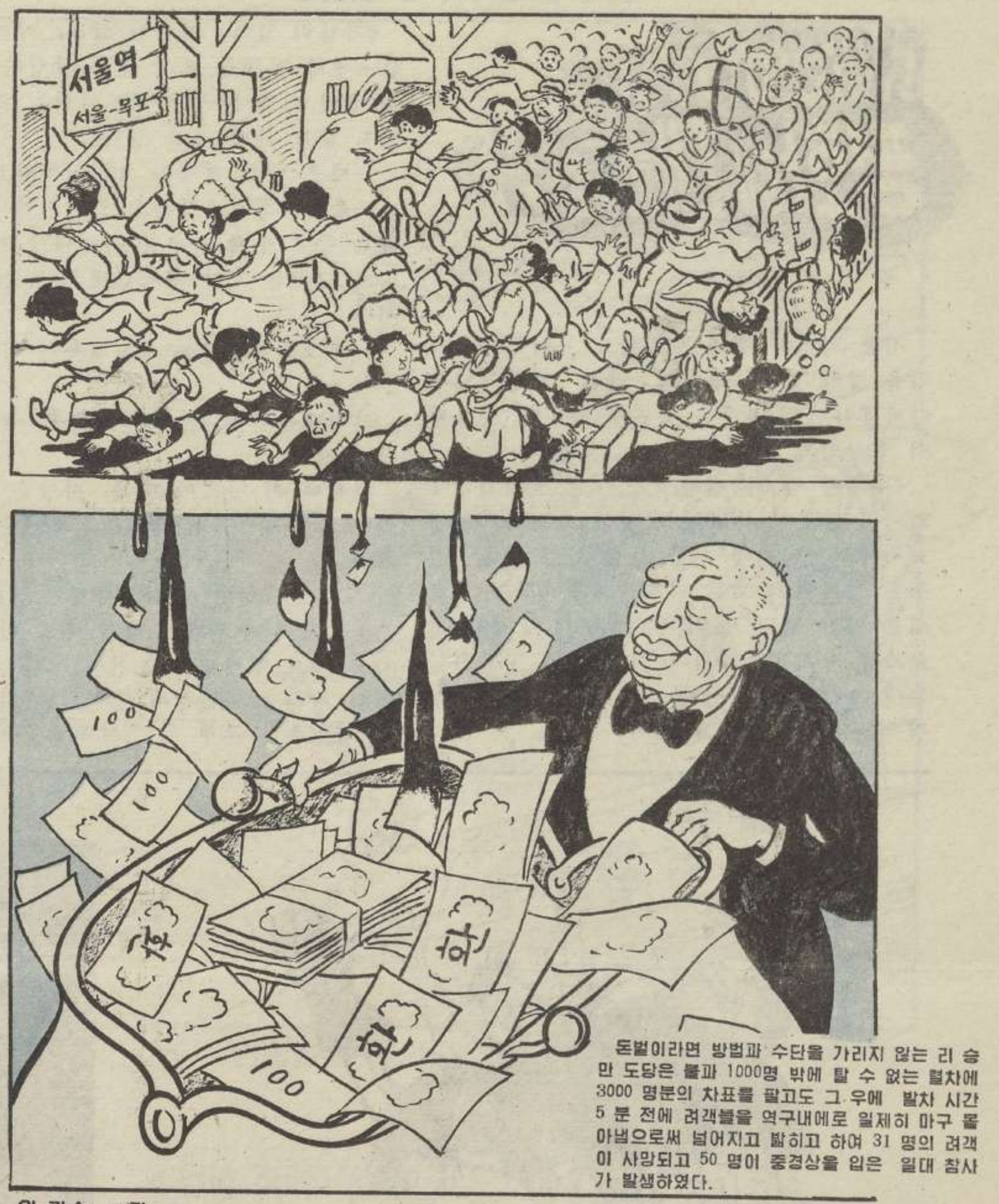
김 상진은 위엄을 도꾸면서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장내 소음에 삼켜지면서 가련하게 들렸다. 《국회 의원》이 군중 앞에서 일개 경찰관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이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경찰관이오 연설 중지》

경찰이 다시 호령을 쳤을 때, 이 구석 저 구석에서 깡패들이 몰려 나오면서 《집어 처라》하고 고함을 쳤다.

김 상진은 괴'대를 도꾸어

서울역에서의 참변



돈벌이라면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 리 승만 도당은 불과 1000명 밖에 탈 수 없는 렬차에 3000 명분의 차표를 팔고도 그 우에 발차 시간 5 분 전에 려객들을 역구내에로 일제히 마구 몰아넣으로써 넘어지고 밟히고 하여 31 명의 려객이 사망되고 50 명이 중경상을 입은 일대 참사가 발생하였다.

원 광수 그림

《여러분 천하에 이런 법이…》하고 웨칠때 어데서 날아 왔는지 돌맹이가 물병을 후려쳤다. 유리가 산산 쪼각으로 흩어지면서 물이 쏟아졌다.

이 때 앞줄에 대기하고 있던 야당패 청년들이 와하고 일어 섰다.

의자가 공중에서 날고 연단이 부서지고 깡패들간의 주먹 싸움이 붙었다.

질겁한 군중들이 비명을 올리며 흩어졌다. 장내는 수라장이 되였고 아우성 소리가 높아갔다.

× ×

붕대로 골통을 휘감아 석고상처럼 된 《국회 의원》이 진주 《경찰서장》과 마주 앉았다.

《서장이 책임을 져야겠소》

김 상진은 초라한 꼴로 됐지만 위엄을 세우느라고 점잖게 말을 꺼냈다.

《뭘을 책임집니까》

《첫째 국회 의원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모욕했으며 둘째 나를 부상시켰으며 세째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침범했고 네째 연설장 기물을 파손했소, 통탄할 일에 책임을 못지겠단 말이오?》

《국회 의원》은 준비한대로 내려 엮었다.

《경찰 서장》은 씨무룩해 지면서 정중히 대답했다.

《당신은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했고 우리 경찰관 한 사람을 전치 2 주일을 요하는 부상을 입혔소. 그 보다도 군중을 선동해서 경찰에 항거케 했으니 반국가적 범죄를 저질렀소》

뭐이 나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도 반국가죄의 감투를 씌울 작정이냐, 엉》

《국회 의원》은 화를 참지 못하여 소리를 질렀다.

《여기는 국회 의사당이 아니우, 나는 지금 공무 집행중인 경찰관이오》

《뭐이 그렇게 공무 집행을 잘해서 국회 의원을 모욕하는 거냐》

《국회 의원 선생. 조용히 헙시다. 당신은 군중을 선동해서 경찰관을 부상시킨 선동자요. 현행범이오. 내가 만일 당신을 보살피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서 맞아 죽을 것이오 우리 경관들이 모두 흥분하고 있소 만일 경찰이 당신의 연설을 중지시키지 않았다면 어제 벌써 깡패들에 의하여 시체로 되였을 것이오.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그처럼 힘쓰고 있는데 왜 그렇게 몰라 주나요》

《경찰 서장》의 말이였다.

아이젠하워의 《평화에 대한 결심》

로 철

신문 기자가 취재를 하려고 아이젠하워의 집을 찾아 갔다. 때마침 이른 아침이여서 아이젠하워는 잠옷을 입은채 책상에 엎드려서 무엇인가 열심히 쓰고 있었다.

《대통령 각하, 지난 1월 18일 당신이 국회에서 발표한 1960년도 일반 교서와 예산 교서에서 〈평화에 대한 결심〉이란 말을 서두에 한마디 하고는 거의 전부 〈광범한 토대를 가진 힘의 립장〉과 〈고도의 군사적 실효성을 유지〉할 계획에 대해서만 말씀하였는데 그 〈평화에 대한 결심〉이란 어떤 것인지 좀 상세히 듣자고 해서…》

《가만히 있소, 가만히 있소, 이제 극진한 친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참인데 이거나 좀 끝낸 다음에… (아이젠하워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계속 쓰고 있다)

—매우 급한 편지신 모양이구만요?

—음? 그렇소, 당산도 알겠지만 매그루더라고 한국 주재 유엔군 사령관을 하는 친구에게 보내는 회답 편지인데 급하다면 급하지…

—매그루더씨와는 오래전부터 친히 아시는가요?

어릴때부터 뒤'골목에서 권총 놀이도 같이 했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딱한 사연을 써 왔구려… 말하자면 내 개인적 조언을 바라는 게지…

—거기서 어떤 중대한 사건이 생겼는지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우리 미군 제7사단 땅크 부대에서 조선 녀성의 머리채를 깎아 버리고 하반신에 뼁끼칠을 한 일이 있지 않았소? 그게 뭐 대수로운 일이라구… 그런데 조선 사람들이 모두 화산 같이 성이 나서 〈미군 나가라!〉라고 마구 웨쳐대는게 방금 전 민족적 폭동이라도 일어 날 것 같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이 친구 벌벌 떨면서 우는 소리를 써 오지 않았겠소?

—그래, 대통령 각하는 어떻게 회답을 쓰셨는가요?

—그거야 뭐 빤한 일이지, 내 이제 읽을게 좀 들어 보겠소? 이국 땅에서 그만한 놀음도 없이 우리 아메리카 병사들이 어떻게 무료한 나날을 보내겠느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비를 거는 자는 법에 의하여 엄격히 처단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라고 리 승만에게 일러 주고 한편 마구 총질을 일삼는다는 항의에 대해서는 사격 련습이라고 하고 칼질은 격검 훈련이요, 로략질은 군용 물자 회수요, 겁탈질은 불법 침입자 처단이고 행악질은 야만인인 한국 사람들에게 문명한 미국식 생활 양식을 배워 주는 방법인 것이니 금할 수는 없을 뿐더러 더욱 장려하여 마땅하다고 일체 선전 수단을 동원하여 세상에 공포하며…

기자는 어리둥절해서 듣고만 있다.

아이젠하워는 의기 양양해서 계속 제 편지를 읽는다.

(하물며 우리 미국은 이미 한국에 유도탄과 각종 신형 무기를 반입했고 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이 때에 그까짓 한국 녀성 몇명쯤 겁탈하고 죽이는게 뭐 그리 큰 일이라고 하겠는가, 걱정 말고 남조선 〈국방군〉이나 바싹 더 증강하고 〈합동 전투 훈련〉, 〈원자 기동 훈련〉, 〈동기 훈련〉, 〈춘기 훈련〉, 〈야외 련습〉 같은 것을 될수록 군사 분계선 지대에서 자주 조직하며 북조선에 더 많은 군사 첩보원을 파견할 데 대하여서나 머리를 쓰라)

—…내 조언은 대체 이렇소… 아, 참 우리 병사들의 사기를 돋구기 위해 미군 위안소 사업을 개선할 데 대하여서도 좀 써 주어야 겠구만…

이윽고 아이젠하워는 편지를 다 쓰고 침을 칠해 봉투까지 봉하고 나서 만족한 얼굴로 돌아 앉았다.

—…자, 그러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오, 이제는 당신의 질문에 대답해 봅시다. 〈평화에 대한 결심〉이란 나의 연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물었던가? 그것은, 에…

—아니, 대통령 각하, 당신의 〈평화에 대한 결심〉이 무엇이란 것을 이제는 상세히 안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송 용남 그림

—기지개 조심해 켜요 집 날아 나리다.

—엄마 손이 약 손이지 그래 그래 안 아프지

약 만드는 《예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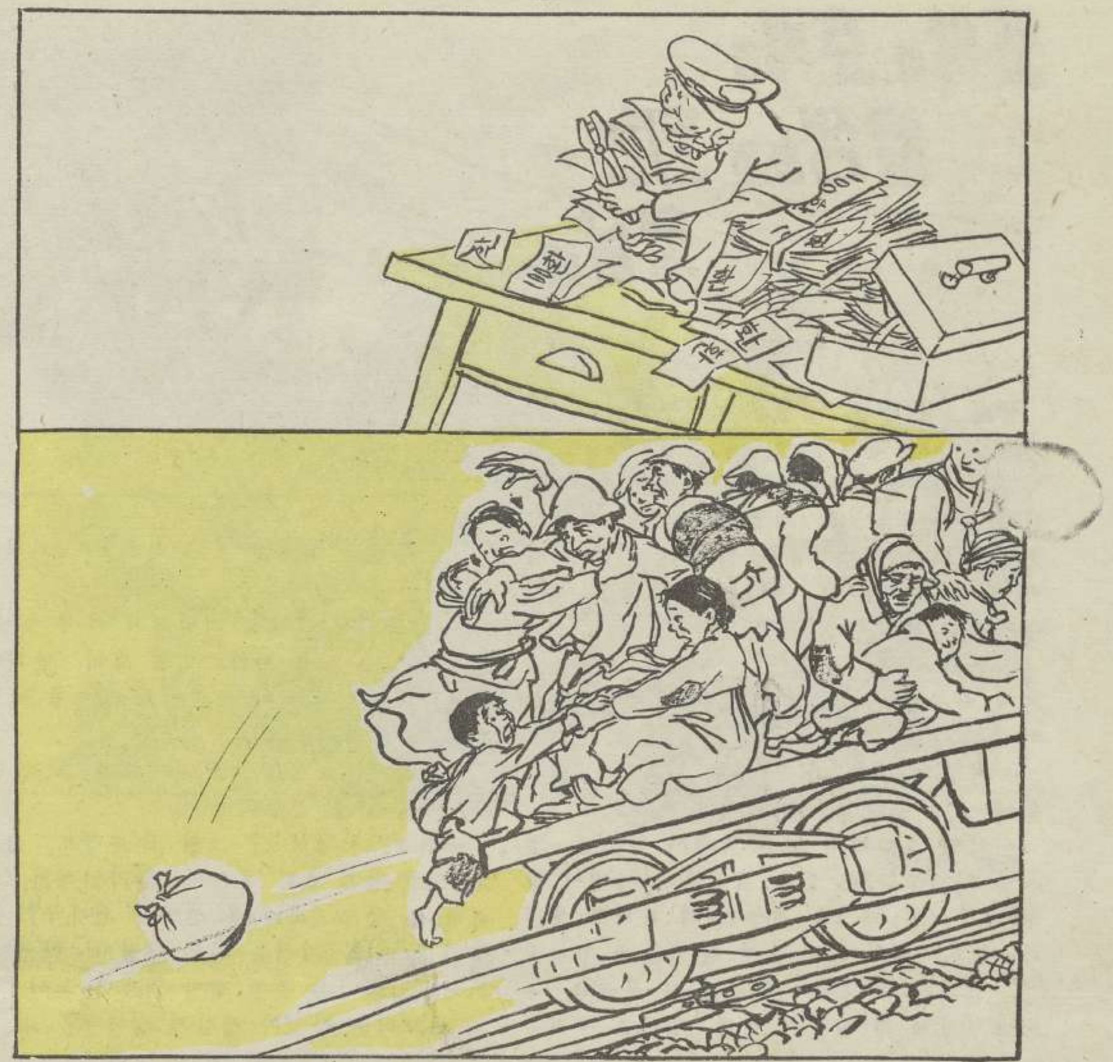
《재 강림한 예수》라고 자칭하는 박 태선은 자기가 세수를 하였거나 목욕을 한 물을 팔아 먹었다고 남조선 신문들은 전하고 있다.

조 명식 그림

《자살자 단속 주간》

리 춘수 그림

놈들은 돈 낟가리를 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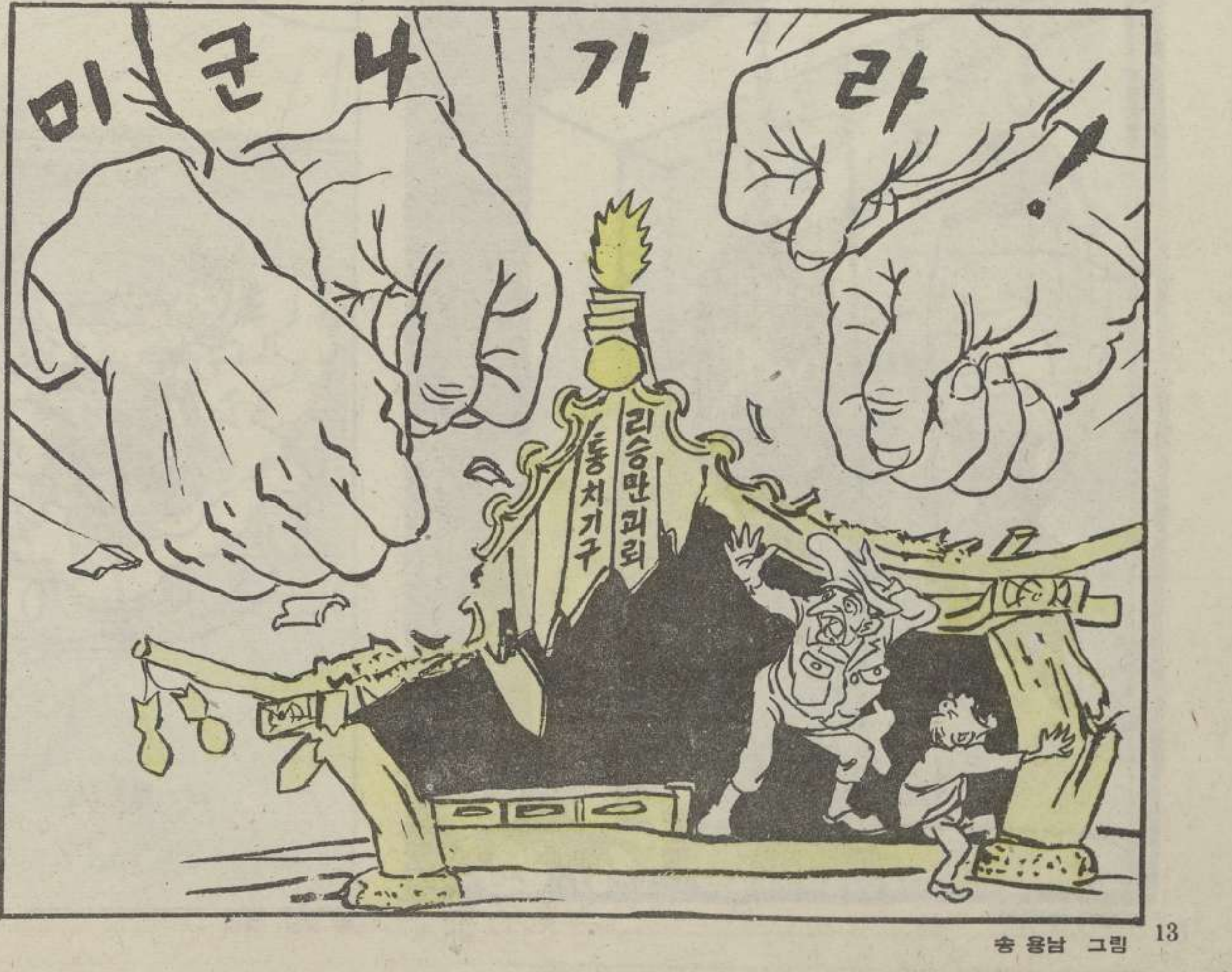


인민들은 살인 렬차를 탄다

송 용남 그림

송 용남 그림

더는 견디내지 못한다



송 용남 그림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첫날에

최 경희

금년 1월 19일, 워싱톤 백악관에서….

일본 수상 기시와 미국무 장관 허터는 침략적 군사 동맹 조약인 〈일미 호상 원조 및 안전 보장 조약〉에 서명하고 서로 교활한 웃음을 띠우고 악수를 나누었다. 뒤에 섰던 미 부대통령 닉슨이 쌍판주 잔을 들고 기시에게로 다가 갔다.

—기시 수상, 축하하오. 당신은 실로 일본의 위대한 지도자이며 우리 미국의 충실한 친우요!

—워싱톤의 원대한 〈방공 계획〉 실행을 위해 그저 충실할 다름이지요.

—이제 도꾜에서 일본 국회의 비준만 받으면 이 《조약》은 인차 효력을 나타내여 평양, 모쓰크바, 북경을 겨누는 핵 로케트 무기가 일본 〈자위대〉의 손에 쓸어들게 될거요 그래서 아세아에서 천지 개벽의 두터운 〈랭전〉의 얼음이 열게 될거고 우리는 그 우에서 마음껏 초과 리윤을… 히히히

—킥킥킥…

—이 력사적인 날을 기념해서 기시 수상, 나는 당신을 오늘 저녁 일본 료리 연회에 초대하려는데 참석하여 주시겠소? 물론 비용은 나 혼자서…

—헤헤헤, 고맙습니다… 그런데 닉슨 각하, 부탁이 좀 있는데요…

—뭐요? 비밀이요? 그럼 귀'속말로 하시요, 응? 일본 료리 연회에 참가하려면 〈하오리〉를 입고 〈게다〉를 신어야 된다구? 그렇지 않다간 〈기시는 일본 사람이 아니다〉느니 〈민족성은 몽땅 팔아 먹었다〉느니 하고 시끄러운 말썽이 생길거 같다구? 흠 하긴 당신이 엿그제 싼프란시스코에서 〈일본 신문은 뉴욕 타임스와는 달라서 욕설만 하기 좋아 해서 나는 일본 신문을 받아 들때에는 주로 스포츠란만 본다〉라고 말했었지, 하긴 일본에서는 대중들이 더욱 들끓고 있으니까… 좋소, 그렇게 하시요. 〈하오리〉〈게다〉루 오서도 괜찮소, 그런데? 그런데 일본을 떠날 때 그걸 몽땅 못가져 왔다구? 왜요? 1월 16일에 동경을 떠날 예정이였는데 하네다 비행장에 70만 일본 군중이 모여서 못떠나게 길을 가로 막고 선다는 소문을 듣고… 하루 앞당겨 15일 이른 새벽에, 그것도 1만명의 경관을 동원하고 경관 300명의 호위를 받아서 남몰래 떠나 오는 바람에… 짐을 하나도 못가지고 왔다구요? 흠! 나도 그 이야기는 들었소. 라틴 아메리카에서 톡톡히 겪어 봐서 나도 잘 알고 있지만… 기시 수상, 그건 당신 잘 처신한거요! 그렇다면 이렇게 합시다. 주미 일본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서 인차 〈하오리〉 한 벌과 〈게다〉 한컬레를 가져 오라구… 뭐요? 일본 대사관 주위에도 숫한 미국 공민, 일본 공민이 모여서 《일미 군사 동맹 조약을 폐기하라》 《기시를 타도하라!》고 웨치고 있다구? 그것 야단 났구만… 그러면 여기 워싱톤 시내에두 일본 거류민이 살고 있었는데 좀 부탁해 볼까? 아니 뭐? 모두 거리에 나서서 《기시만 보이면 때려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다구? 으흠… 이게 참 벌둥지 튀겨 놓은 것 같구만… 그러니 어쩐다? 그 외에 〈하오리〉와 〈게다〉라고는 이 백악관 내에는 없을 것 같은데… 옳지, 옳아, 일본 히로히도 천황이 일찌기 도죠 히데기가 입던 것이라고 작년에 아이젠하워에게 선물한 것이 아마 백악관 박물관에 진렬돼 있겠구만…

이 때에야 기시는 후— 하고 안도의 숨을 쉬였다.

—부대통령 각하! 그것을 좀 빌려 쓸 수 없을까요?

—좋소, 그러나 기시 수상, 오늘 우리가 조인한 〈조약〉이 효력을 나타내자 마자 그 값은 인차 치러내야한다는 걸 잊지 마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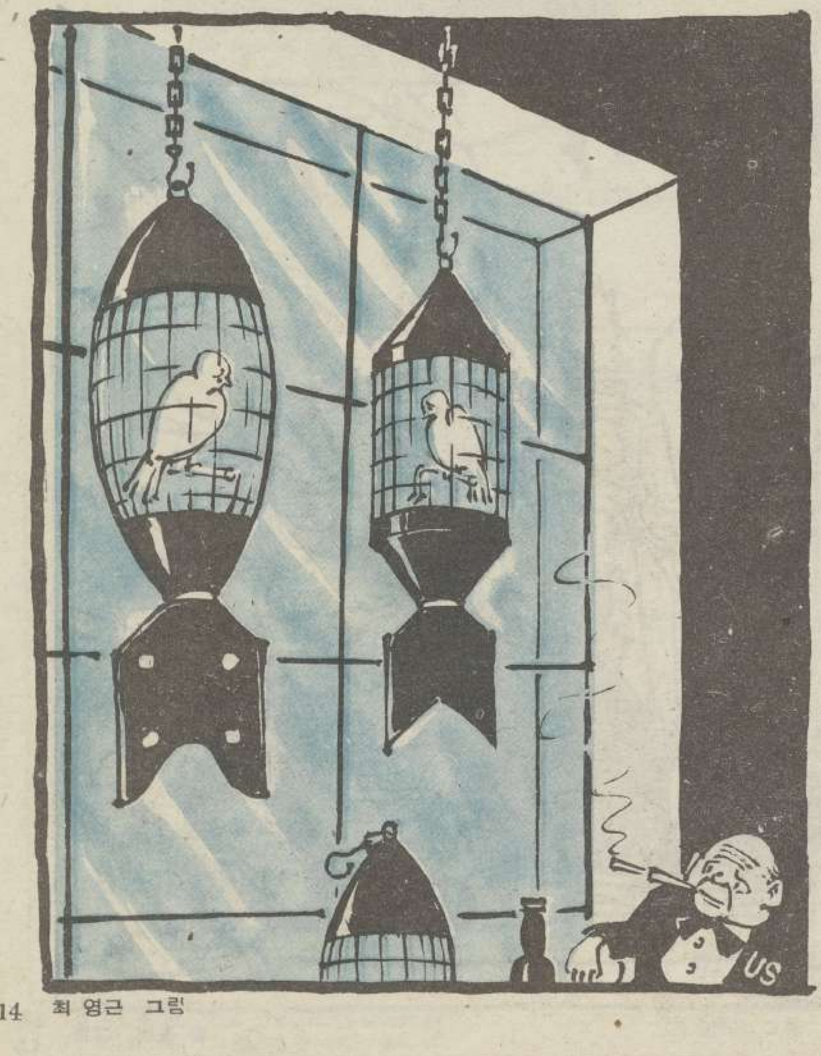
야수들의 손톱

백 인규 그림

폭탄 농사

백 인규 그림

《평화 옹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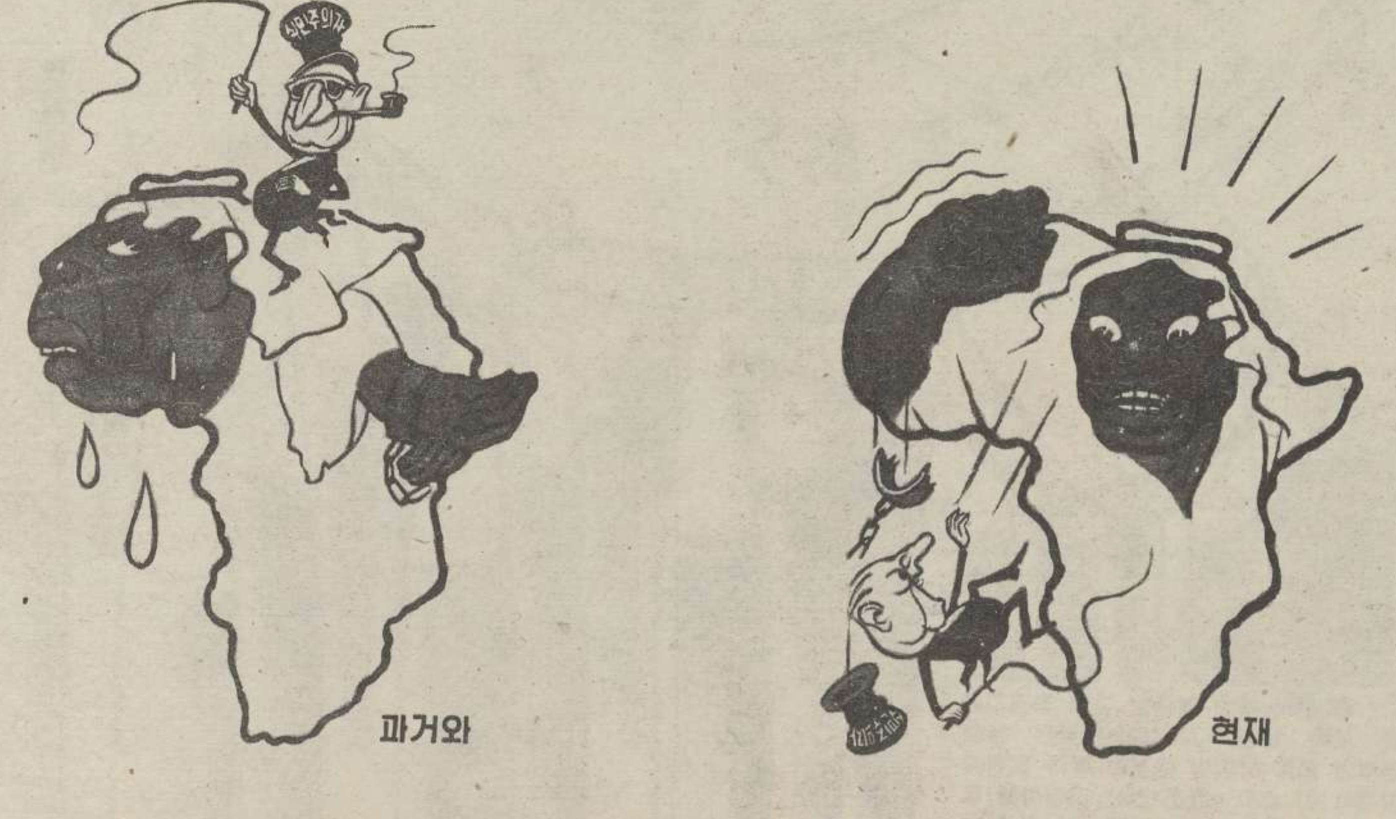
최 영근 그림

서구라파의 한 바다가에서

송 용남 그림

미 영간에 영불간에 영 서독간에 미불간에 불 서독간에는 상품 판매 시장과 자본 투하권 및 원료 원천지 쟁탈을 위한 충돌과 싸움질이 계속되고 있다.

아프리카의



리 찬우 그림

편집 위원회
발행소 국립 미술 출판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15217
발행 1960. 2. 20
(값 40전)

8034
Хвальсаль

《칼》을 썼다

ПЭК 8
ул. Чайковского
г. 19/21
американскому посольству
10 1-12 18034

2차 대전 후 미국 독점 계층은 그의 경쟁자들인 영, 불, 서독, 일본 등이 심히 약화된 틈을 타서 자본주의 세계 시장의 현저한 몫을 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위 〈원조〉라는 미명하에 우선 경제적 지배를 확립하고 그것을 정치적 억압의 철쇄로 전변시켰다.

박 승히 그림